

5 분 자 유 발 언

- 생활인구 확대, 인구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고성군의회
(최상림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상림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정주인구를 늘리는 일도, 재정을 확보하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 같은
강력한 유인 요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인구 확대를
인구정책의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소를 옮겨오는 사람을 늘리는 것’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고성에 머물고, 소비하고,
거듭 찾아오는 이들까지
소중한 인구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정부도 2022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
인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2024년 월평균 생활인구는
27만 7천여 명입니다.

공룡엑스포가 열린 10월에는
35만 8천여 명까지 늘었지만,
1월에는 22만 6천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편차를 줄여야 군이 세운
올해 월평균 30만 명 목표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방문객을
하루 더 머무는 방문객으로,

한 번 찾은 방문객을
다시 찾는 관계인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생활인구 정책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군민의 삶과 군의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성과를 ‘사람 수’가 아닌
‘체류 시간과 소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군은 이미 전지훈련 유치와 촌캉스,
청년예술촌, 위케이션 등
오래 머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항포 공룡 콘텐츠와 마동호 생태체험,
자란만 해양치유, 역사·문화자원을 엮어
고성만의 매력으로 키우고,

겨울철 전지훈련 참가자와
문화·농어촌 체험을 찾는 관광객이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칭 ‘고성 생활군민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단순 방문객이 아닌
출향인, 고향사랑기부자, 전지훈련 참가자 등
고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을
‘생활군민’으로 지정하고,

공공시설과 숙박·음식점·전통시장 등의
이용 혜택을 제공해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는 길입니다.

셋째, 인구청년추진단이 컨트롤타워로서
부서 간 협업체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각 부서는 개별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되,
재방문율과 체류기간 같은 지표를
공통 성과지표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각 부서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
생활인구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보통교부세 확충으로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결실을 보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생활군민 등록과 통계 관리까지
구체화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 역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는 사람에게는 더 살기 좋은 고성,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더 머물고 싶은 고성,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찾는
고성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군의 재정 자립 기반을 다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생활인구 확대에
함께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